

# 대학구조개혁의 중심에 서는 대학

이상규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위기는 반전의 기회

대학구조개혁이라는 거창한 주제를 논하기 이전에 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나를 낳아 준,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된 어머니는 영어는 물론이고 미분도 적분도 모르고 젊은 시절 낮이면 들판에서 농사를 짓고, 저녁이면 벼틀에 앉아 가족들이 일 년 동안 입을 옷감을 짜느라 밤을 지새운 적이 많았다는 전설과도 같은 지난 이야기를 떠올려 본다.

신학문이 도입되고 미적분뿐만 아니라 영어와 독일어, 화학 원소 기호도 배워야 하는 숨겨진 경쟁력을 통과하기 위해 어떠한 육체적인 노동도 경험할 기회를 잃게 만든 우리의 교육제도가 얼마나 허점이 많았는지 이제는 되짚어 보아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노동에서 멀어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가르쳐 왔다. 지난 시절 가난 때문에 제도교육권에서 소외되었던 아버지들 가슴에 맺힌 한이 무엇이었겠는가? 명문대학을 나와 고시에 붙든지 의과대학을 나와 의사가 되든지 하면 무지의 한을 풀고 가난의 고리를 단절할 수 있

는 최선의 길임을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제도가 상당 부분 입증해 오지 않았던가?

최근의 건설현장에서 목공과 미장일을 할 사람 중에는 젊은이들이 거의 없다고 한다. 우리의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젊은이들이 없어진 것은 이미 수십 년 전의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직업 선택 방식의 구조적 모순을 교육제도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고 일말의 노력이라도 한 적이 있었는가? 교육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의 이야기이다.

대학 학생정원의 수요공급 불일치 때문에 군소대학의 도산이 도미노를 이룰 것이라는 불안정한 예측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작금의 대학구조개혁은 출발점에서부터 대학 구성원들의 무관심과 국민들의 외면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적 상황이 가장 최선의 교육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 대학경영의 다원화라는 전체 위에서 지금의 대학교육의 위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교육

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 특성 있는 교육을 펼칠 수 있는 절호의 전환적 기회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II. 대학구조개혁의 당위성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의 큰 모델을 권역별 대학의 통폐합을 시도하는 정도로 매우 단순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시 말하자면 대학구조개혁의 기본적인 이유와 동인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학구조개혁은 이러한 한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이 시점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국가발전의 전략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대학마다 대학 특성에 맞는 교육의 현실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대학 구성원들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어렵잖게 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면 왜 대학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 나름대로 몇 가지로 요약해 보겠다.

첫째, 대학구조개혁은 대학교육의 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전제하지 않고는 성립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대학생들의 절대 학습시간은 부족하다. 학기는 너무 짧고 방학은 너무 긴 결과, 학습과 실험 실습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이 세계적 경쟁력에서 밀려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매일 놀기만 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모든 대학은 붕어빵처럼 틀에 박힌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됨으로써 경쟁력을 가진 다양한 인재를 키워 내는 데 실패하였다. 4년제 전국대학 영문과 영미희곡

시간에 고전 영어로 된 셰익스피어 작품이 얼마나 중요한 교과목이 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가? 미국 유명대학에서 셰익스피어 작품 분석으로 학위를 수득한 교수님이 토익 500점에 미달하는 학생들에게 너희는 못 알아먹어도 나는 바담풍이라며 셰익스피어 작품론 강의를 밀어붙이는 현실이 아닌가?

여기 재미있는 사례가 있다. 아직도 전문대학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고수하고 있는 영진전문대학이 있다. 4년제 대학졸업자 이상의 현장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워낼 수 있는 그 전문대학의 전략이 바로 '맞춤식 교육프로그램'이다. 지역사회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예측하여 키워내는 맞춤식 교육 프로그램이 한 전문대학을 건설하게 키워낸 것이다. 4년제 대학이라고 뭐 문제가 크게 다를 것인가?

셋째, 대학교 내부의 구성원들의 대학현실에 대한 인식 부족과 무관심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국립대학교의 교수들을 일컬어 흔히 '철밥통', '무풍지대의 언덕에 고고한 학처럼 살아가는 인품 높은 사람들'이라 비꼬는 이들을 종종 볼 수 있을 것이다. 학문경쟁력을 유발시키는 데 실패한 국립대학의 구조(학과중심의 교수구성)는 결국 대학의 세계적인 경쟁력 강화를 저지하는 너무나 높은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연대 의식은 정말로 대단하지 않은가?

넷째, 현실적인 문제를 건너뛸 수 없다. 대학정원의 미달학교가 점점 증가하고, 후발 대학 및 2년제 전문대학의 경영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는 조만간에 호전될 전망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에 몸담고 있는 교수들은 많은 시간을 학생 유치를 위

해, 교육과 연구라는 본연의 임무는 뒤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입학정원이 800여 명인 모 2년제 대학의 금년도 입학생이 200여 명도 안 되니 이 대학은 조만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다섯째, 특히 국립대학교는 영세민들의 아들이나 농민이나 노동자 아이들을 위해 과연 얼마만큼 지원을 했는지 내부를 들여다보면 국립대학교의 설립 취지와는 달리 성적 우수자 중심의 장학정책을 유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국립대학교 설립 근본 취지는 달리 정부 재정에만 매달려 왔다. 거의 4배에 가까운 등록금을 내고 사립대학교를 다니는 학생과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국립대학교를 다니는 학생과의 등록금 부담의 비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여섯째,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대학제도의 다양성과 차별성이 무너졌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구분과 일반대학과 직업전문대학인 산업대학과의 차별성이 거의 없다. 아울러 전문대학이나 산업대학의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특히 사범대학과 교육대학과의 차별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립대학교의 문리과대학과 사범대학 간의 교과과정을 대비해보면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실제 강의 내용은 거의 동일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의 전공별 교과과정을 비교해 보아도 마찬가지로 실정이다. 모 대학교에 화학과와 유사한 전공이 자연대(화학과), 농과대(농업화학과), 공과대(공업화학과), 사대(화학교육과)에 두루 분포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대학구조의 비효율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토대로 하여 '왜 대학구조개혁이 필요한가'라는 문제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제 대학의 주체인 학생과 교수들이 냉정하게 대학구조개혁의 주체자로서 구조조정 정당성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하고, 또 그 목표를 보다 더 또렷하게 인식해야 하리라 본다. 예를 들면 지역대학의 경영 위기와 도산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지난 시절 대학정원의 수요공급에 대한 예측력의 부족으로 인한 교육정책의 탓으로만 이야기할 낭만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학의 구성원은 물론이거니와 지방 정부나 기업, 나아가서 지역의 금융계에서도 경영난에 봉착한 대학도산 상태에 응분의 책임을 지역민들과 더불어 공유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제 없이는 대학구조개혁은 대학만의 문제로, 또 그들만의 복세통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 Ⅲ. 대학구조개혁 논의의 한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 방향의 큰 흐름은 광역단위의 대학 간의 통폐합이라는 방식이다. 그런데 광역권의 대학 통폐합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면 매우 걱정스럽다. 대학 구성원들의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인식은 '어느 대학교와 통합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얼마나 준단다. 그러니까 반대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또는 '우리 대학교의 전통이 이러한데 절대로 그 대학과는 통합할 수 없다'는 식의 찬반 논의를 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이 글을 실증적으로 쓰기 위해 며칠 전 지역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은 먼저 국립대학교가 출선해서  
 학생정원을 줄이는 일이 성공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국립대학교의 학생정원을 줄이면 지역의 사립대학의 학생 수급에  
 안정을 주게 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학생 수급의 안정을 찾은 사립대학교는  
 학생정원을 줄이거나 교수를 증원시켜 국립대학교 수준의 교수·학생 비율을  
 유지하도록 유도해야 하리라 본다.

대학교의 20여 명의 교수를 상대로 통합 예상 대학교의 학생정원, 교직원 수, 학과에 대한 정보와 '왜 대학교의 통합이 필요한가' 라는 내용의 전화 설문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통합 대상 대학교의 학생정원이나 교직원의 숫자에 대해 거의 무지에 가까웠다는 사실과 대학교 통합의 이유를 설문대상 교수의 90%가 정부의 지원금 수혜 때문이라는 답변이었다.

정부가 교수들의 교육과 학문연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에 대해 대학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단정했던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대학 내부적 모순구조를 개혁하고자 하려는 기미는 전국 어느 대학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데 현실적 참담함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은 정부 대학구조조정 지원금만 경쟁적으로 많이 받아내자는 대학교들의 잔치(형식적 개혁)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는 교수들이 많다.

대학구조개혁의 목표와 본질은 세계적 경쟁

력을 강화하는 것인 동시에 대학이 각자 다양한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운영함으로써 대학간의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 대해 과연 대학교의 운영주체들이 얼마만큼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들 앞에 놓인 대학교육개혁은 어떤 이상적인 모델이 아니라 실천이 중시되어야 한다. 정부는 대학교육개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정확하고 타당한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라의 백년대계를 이끌 인재를 양성할 대학구조조정은 국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고 이루어내야 할 현실적 과제이다.

결국 대학구조개혁은 대학 내부로부터 시작되어 지역사회와 정부로의 연대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본다. 광역권에 설치된 대학구조개혁단에서 이러한 임무와 과제 달성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왜 대학 내부로부터 그러한 대학구조조정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지 않는지 참 이상하

지도 않은가? 한 마디로 말해서 대학 구성원들은 별로 답답하지 않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밖에 달리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교수님들, '이대료가 좋다. 아이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가 알 바 아니다' 이런 것은 아닌가?

#### Ⅳ. 대학구조개혁의 전망과 대안

대학구조개혁의 최대의 목표가 대학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에 있다면 대학생들의 학습방식과 교수 연구의 경쟁력 강화와 같은 교육의 질적 문제를 제쳐두고 어떻게 논의를 할 수 있겠는가? 학생들의 수업 시수는 대학재정 운용 방식과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학점을 늘리거나 수업 시간을 늘리지 않고 학습평가 방식의 개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학습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방학동안 학생들이 수업이나 현장 조사의 체험을 갖도록 유도한 다음 그 학기의 학습평가를 다음 학기 초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학습시간을 연장하여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한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교수들의 연구 평가도 철저하게 경쟁하도록 교수 직렬과 급여 방식을 재조정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다원화된 사회 이상과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로 들어서 있다. 따라서 대학도 좀 더 다양한 교육목표를 가지고 이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의 교육과정의 틀을 재조정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또는 학생들이 교과목과 교수를 자유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수인력 풀제도를 도입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국립대학교의 대학구조개혁의 큰 이슈가 국

립대학법인화 문제로 번지고 있다. 영국 노동자학교 설립이념을 구현하려는 목표를 가진 우리나라 국립대학교는 전혀 본질적인 이념에 충실하지 않으면서도 정부에 얹혀서 국가 세금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국가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일본의 국립대가 모두 법인화로 경영방식을 전환했다. 그 전단계로 학부와 대학원 중심으로 대학구조를 이원화하여 교수들의 경쟁체제를 유도하였으며, 이를 발판으로 하여 국립대학교 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독립채산 운영체로 전면 전환하여 세계적인 경쟁대열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립대학교도 학부와 대학원의 이중구조로 재편하여 교수들 간의 경쟁력을 강화한 이후 단계적으로 국립대학법인화를 검토해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은 먼저 국립대학교가 솔선해서 학생정원을 줄이는 일이 성공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국립대학교의 학생정원을 줄이면 지역의 사립대학의 학생수급에 안정을 주게 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학생수급의 안정을 찾은 사립대학교는 학생정원을 줄이거나 교수를 증원시켜 국립대학교 수준의 교수·학생 비율을 유지하도록 유도해야 하리라 본다. 이렇게 되면 적체되어 있는 학문 후속세대에게 대학 진출의 빚장을 풀게 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한 가지 큰 인식 전환이 필요한 대목이 있다. 대학이 고등학교 졸업자인 19세 정도의 인재만 대상으로 교육하는 닫힌 교육기관이 아니라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하여 대학의 본질을 보다 확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대학은 화이트칼라만 배출해 내는 사치스러운 아카데미가 아니며, 생산 노동 활동과는

동떨어진 인재만을 키우는 폐쇄된 상아탑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경영난에 허덕이는 2년제 전문대학이나 산업대학에서는 40~50대 실업자들의 장단기 재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양질의 노동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가진 대학은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또 그 대학의 이수자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인증(certification)을 발급하여 남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도록 기술과 노동교육을 강화한다면 학생정원 불균형에 따른 대학 구조의 위기는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대학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실학정신을 창도하고, 사회 속으로 한 발 더 다가서서 이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미래를 내다보아야 할 때이다. 미래에 적응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에서의 직업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직업현장과 연계한 샌드위치 교육방식의 도입을 통해 대학에서부터 교육과 노동의 신성함을 연계하여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번 대학구조조정 의 이념과 목표 가운데 하나는 대학교육의 다양화와 함께 교육을 통해 노동의 신성함을 일깨우고 가르쳐야 하는 일일 것이다. 대학구조개혁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골몰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본다.

모두에서 이야기한 내 어머니가 체험한 노동의 숭고함을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얼마나 가슴속에 깊이 심어 주었는가? 대학을 나오면 펜대만 까닥거리면서도 노동의 현장에서 골몰하는 이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산업자본주의식 방식을 얼마나 빠르게 새겨왔는가? 교육의 일선 현장에서 연구하고 학생을 지도하시는 대학 교수들은 어떻게 교육하면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지도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이상규

경북대학교를 졸업하였고, 동대학에서 국어학전공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동경대학교 대학원 객원연구교수, 교육인적자원부 기초학문육성위원, 문화방송 우리말 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